

# 종묘 답사기

한국역사의이해

200250876

기계공학부

장준혁

# 목차

1. 서론
2. 본론
  - 2-1. 종묘란?
  - 2-2. 종묘제례
  - 2-3. 정전의 건축적 의의
3. 결론
4. 참고자료

## 1. 서론

얼마 전까지 긴 수리를 받던 사당이 있다. 세운상가를 마주보며 창덕궁, 창경궁과 담장을 맞대고 있는 종묘이다. 제작년 방문하였을 때는 공사중이라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깊이 있게 둘러보며 답사하였다. 이 고즈넉한 종묘는 어떠한 역사를 지닌 시설이고, 종묘제례는 어떠한 행사인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몇 건물 중 정전에 대해 건축적으로 분석하고자 이 레포트를 작성한다.

## 2. 본론

### 2-1. 종묘란?

종묘(宗廟)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조선 건국 후 1395년(태조 4) '좌묘우사(남면하는 왕을 기준으로 정궁인 경복궁의 왼쪽인 동쪽에 선왕께 제를 올리는 사당을 짓고 오른쪽인 서쪽에 땅의 신인 사직에게 제를 올리는 사직단을 짓는다)'하는 예에 따라 현재의 자리에 종묘를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현재의 정전만 있어서 대묘, 태묘, 종묘라고 불렀다.

조선은 제후국으로 5묘제(五廟制)의 예에 따라 개국시조(태조)와 재위 중인 왕의 4대 조상(고조·증조·조부)을 모시는 제도로 종묘에 신주를 모셨다. 그러다가 세종대에 5묘제에 따라 태조를 제외하고 4대가 지난 왕의 신주를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정전 옆에 새로운 별묘(別廟)를 지어 그 이름을 영녕전이라 하였다. 이후 4대가 지난 왕의 신주는 모두 영녕전으로 옮겨 모셨다가, 연산군 대에 '세실(世室, 대대로 정전에 신주를 모심)'과 '조천(祧遷, 영녕전으로 신주를 옮김)'의 예로 신주를 모시게 되었다. 이러한 예에 따라 3년상(27개월)이 끝난 왕과 왕비의 부묘례(祔廟禮,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식)때 정전에 처음 신주가 모셔지고, 이후 '세실' 또는 '조천'으로 정하여 정전과 영녕전에 각각 신주를 모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모시는 신주가 늘어나면서 신실이 몇 차례 증축이 되어 현재의 정전 19칸, 영녕전 16칸의 규모가 되었다. 증축이 완료되어 현재의 구조를 띤 것은 현종 2년(1836)인데, 1926 순종 사후 신위를 정전에 모시면서 정전의 모든 감실에 신위를 모시게 되었고 1973년 영녕전에 단 한 곳 비어있던 감실에 영

친왕과 자행비의 신위를 모시게 되며 영녕전의 감실 역시 가득차게 되었다.

그 밖에 종묘 경내에는 망묘루(望廟樓, 종묘서(宗廟署)의 관원들이 제례에 관한 업무를 보던 곳), 향대청(香大廳, 향과 축문을 보관하는 곳), 재궁(齋宮, 왕과 세자가 제사를 올릴 준비를 하던 곳), 전사청(典祀廳, 제사의 음식을 마련하는 곳) 등의 건물이 있다.

## 2-2 종묘제례란?

종묘제례는 종묘에서 조선시대 유교 예법에 따라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례로 오례의(五禮儀) 중 길례(吉禮)에 속한다. 종묘제례는 왕이 직접 행하는 가장 격식이 높고 큰 제사로 왕을 비롯한 왕세자, 종친, 문무백관 등 제관이 참가하였다.

정전에서는 4계절의 각 첫 달에 정해진 날과 납일(臘日, 동지(冬至) 후 세번째 미일(未日))을 합쳐 1년에 다섯 번, 영녕전에서는 봄·가을 정해진 날에 두 번 제례를 행했다. 이외에도 홍수, 가뭄, 질병, 전쟁,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때와 책봉(冊封), 관례(冠禮), 혼례(婚禮), 흉례(凶禮), 천신(薦新, 새로 농사지은 과일이나 곡식을 먼저 사당에 올려 조상에게 감사를 전하는 예), 천금(薦禽,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먼저 올리는 예) 등이 있을 때도 종묘에서 제례를 지냈다. 종묘제례의 제기는 변(邊), 두(豆), 보(簠), 궤(簋), 작(爵) 등이 있고, 제수(음식)는 희생(소, 양, 돼지고기), 곡물(쌀, 수수, 찰기장 등), 떡, 젓갈, 과일 등이 있다. 현재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과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지내고 있다.

## 2-3 정전의 건축적 의의

아래 사진의 건물이 정전이다. 가로로 길게 늘어선 모습이 웅장하여 사뭇 위압감을 주는데 위계성, 단순성, 반복성, 대칭적 비대칭성, 위요성이라는 다섯 원리를 통해 유교적 엄숙함과 경건함을 공간적으로 실현한다. 위계의 원칙은 건축 구성에서 형태와 공간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점이 감각적으로는 건축형태와 공간의 중요성에 반영되고 구성면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수행하는 기능적, 형태적, 상징적 역할에 반영된다. 신로, 월대, 기단, 담의 간결한 구성으로 외부 공간에 일절 장식 없이 다듬어진 대담한 돌들이 조합된 기단과 월대는 조잡하지 않고 장중하다. 정전은

지붕, 기둥, 기단으로 간결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부연과 단청마저 거부한 소박한 지붕은 초라하지 않고 강렬하며 장엄하다.



반복의 원칙은 하나의 전체 구성 속에서 반복되는 요소에 질서를 부여하려 한다. 반복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많은 요소들을 선형으로 배치하는 패턴이며, 각 요소들은 하나하나 완전한 개성을 갖지는 않아도 되나 반복적인 양식으로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정전의 배치에 있어서 신로를 중심으로 완벽한 좌우대칭은 아니지만 좌우 대칭되게 일곽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제관이나 집례관이 출입하며 부속공간이 연결되는 동문의 비중이 더해지고 있다. 그리고 공신당과 칠사당도 대칭성을 약간 깨는 배치를 보이고 있다.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수직면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이고 강한 공간 규정 방식이며, 이 상태에서는 공간이 완전히 포위되므로 내향성을 지니게 된다.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수직면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이고 강한 공간 규정 방식이며, 이 상태에서는 공간이 완전히 포위되므로 내향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종묘 정전은 서양 건축의 종축 중심 깊이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장엄함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전은 강한 횡축으로 구성된 한동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심후한 공간감을 생성하는데, 이는 시지각 원리를 정밀하게 운용한 결과다.

그 핵심 기법은 익실의 지붕 높이 조정이다. 평면상 전면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정전과 익실이지만, 익실의 지붕을 정전보다 한 단 낮춤으로써 익실이 정전의 전면에서 후퇴하여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낸다. 지붕 음영이 익실 지붕 위로 강하게 떨어지면서 하부 공간이 의식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평면의 건물이 여러 동의 복합 건물처럼 내면적 깊이를 갖는 것처럼 인식된다. 이는 전통 사찰이나 서원 건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묘만의 독특한 기법이다.

또한 남신문을 통해 바라보이는 정전은 문주의 크기 대비와 명도 대비를 이용해 정전이 실제보다 훨씬 크고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되게 한다. 지붕 높이가 담장에서 대문, 부속채, 익실채, 정전으로 올라갈수록 점층적으로 상승하는 구성은 시각적 지속성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 3. 결론

이번 종묘 답사를 통해 하나의 장소가 얼마나 다층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종묘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가 왕조의 정통성과 유교적 세계관을 공간 속에 구현하고자 한 치밀한 의지의 결과물이다. 역사적으로 종묘는 태조의 창건 이래 수백 년에 걸쳐 증축과 정비를 반복하며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방식, 세실과 조천의 원칙, 영녕전의 설립 경위 등은 유교 예법이 왕조의 현실 정치와 긴밀하게 맞물리며 진화한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종묘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던 국가 제도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재작년 공사 중에 미처 다 보지 못했던 종묘를 이번 답사에서 온전히 마주한 것은 뜻깊은 경험이었다. 그 고즈넉한 공간을 직접 걸으며, 역사와 건축과 의례가 하나의 장소에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꼈다. 종묘는 과거를 향한 회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문명적 전통 위에서 있는지를 환기시키는 살아있는 기념비이다.

### 4. 참고문헌

"종묘", 궁궐유적본부, <https://royal.khs.go.kr/ROYAL/contents/menuInfo-jms.do?grpCode=jms>

진경성, 소병익. 종묘의 건축적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